



썰물에 조개잡는 성산 통발알 휴일인 9일 서귀포시 성산을 통발알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썰물로 바닷물이 빠지자 조개잡이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도-도의회-국토교통부-제2공항저지비상회의 비공개토론회

인프라 필요성·기존공항 활용 이견 여전

오는 28일 입지선정 적절성 의제로 3차 토론회 예정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공항 인프라 필요성과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항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제2차 사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 개최 전 참석 패널 간 상호이해와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연속

토론회의 세부 의제 및 자료 준비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 토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에 관련한 쟁점은 '미래 항공 수요(탑승률 및 운항 횟수 등) 산정 기준 예측 차이'와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 관련 대안 적합성의 차이(항공 수요 및 운항 횟수 수용가능 한계 vs 다양한 대안 재검토)', '해의 사례의 적용 가능성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또 ADPi 권고안과 관련한 쟁점은 'ADPi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효과 여부', 'ADPi 권고안의 기존 공항

확충 방안으로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장래 수요여리의 한계 vs 적용 가능성 충분 및 제3차 재검토)', '보조 활주로 활용 가능성(운량 확보) 및 재검토 여부', '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검토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3일 개최된 제1차 토론회에서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항공수요, 환경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 등)을 의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항공수요 관련 쟁점은 '예측방법에 대한 차이', 환경수용력 관련 쟁점은 '수용력 개념 및 측정방법'으로 나타났고,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대안을 두고 '제2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충의 차이'도 있었다.

또 주민 수용성 관련 쟁점에서는

'법·제도적 절차와 내용적·실질적 절차의 차이'와 '항후 주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차이'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쟁점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습굴, 항공소음 등고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차이'를 보였으며, 관련 자료는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제3차 비공개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을 의제로 오는 28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2공항 갈등해소 특위 관계자는 "세 차례의 비공개 토론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대정~남원 중산간 관광벨트 첫 선

도, 올해 52억 투입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본격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소득증대 창출 사업 등에 총 5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태관광'이란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누구나 생태자원을 직접 느끼고 배우며 즐길 수 있고, 다

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혜택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스토리텔링을 체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 생태관광지원센터에 위탁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생태관광협의체,

단체, 전문가를 위촉해 임기 2년의 제3기 생태관광위원회를 재구성하기도 했다.

또 도지사 공약과제인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정~남원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관련 조사된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시범운영된다. 도는 주민주도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 환경보전, 복지향상 3박자가 맞는 생태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생태관광인증 시범운영도 추진된다. 도는 지난 4월 13일 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생태관광 인증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올해 생태관광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인증 절차 등 구체적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은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 효돈천 및 하례리마을,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등 세곳이다.

생태관광 인증제는 자연·문화를 보전하면서 생태관광을 육성하고 관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대상은 관광지, 숙박시설, 여행상품 등이다. 오은지기자

한라생태숲, 전구간 무장애 탐방로 조성

11월까지 완료… 휠체어·유모차로도 3186m 내부 순환

오는 11월부터 한라생태숲 전 구간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생태숲 내부순환 탐방로 중 386m 구간을 탄성포장재로 교체해 3186m의 내부를 순환할 수 있는 무장애 길을 완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폭이 좁았던 주차장 5500㎡의 주차선을 20cm 넓게 재배치해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한다. 3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이달말 착공해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비포장 탐방로로 남아있는 유아숲체험원과 꽃나무숲 등 386m 구간을 1.5m 폭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탄성 포장을 해 기존 탐방로

2800m와 연결하게 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한라생태숲을 찾는 노약자·장애인·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해 전 구간에 대한 탐방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유아숲체험원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울타리 시설 323m와 기존 탐방로 중 파고라시설이 필요한 단풍나무숲 인근에 시설을 추가해 탐방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라생태숲을 찾는 탐방객들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라생태숲 탐방객은 6만3171명으로 전년동기 5만389명보다 25% 증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 가구당 300만원

올해 총 1억50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1순위 지원대상은 자녀 연령 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 2순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4인 가구 기준 379만원) 이내인 보장종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

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은 오는 15일까지 대상자료를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후 25일 가구별 지급계좌로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25가구에 각각 7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보장종지 한부모가족 50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3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8가구에 2052명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유원시설 놀이기구 안전관리실태 점검

제주시 15일까지 40곳 대상

제주시는 유원시설 사업자 안전의식을 높여 이용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등록 유원시설업 40개소(종합 1, 일반 5, 기타 34)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종식후 많은 관광객의 제주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유기시설(기구) 안전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표지판 게시 ▷종사자 안전교육 등 유원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유기기구 보험가입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유원시

설 설비기준 적합 여부와 관광진흥법 위반사항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또 시는 '등록에서부터 폐업까지 유원시설 운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매뉴얼'도 배포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원시설업자에게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수료 50% 감면·지원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찾아가는 금연상담서비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라면 어디든 찾아가 상담해드립니다!

■대 상 : 여성, 청소년, 대학생, 장애인, 사업장 근로자

■제주 전 지역 방문 상담

■등록 후 6개월간 1:1 맞춤형 상담과 보조제 무료 제공

■금연 포상금 제공

■신 청 : 758-9030, 010-8814-903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카카오톡 : jejutcc

올해는 꼭!

20년 20년

4박5일 무료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가자 모집

□ 대 상

-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2회 이상의 금연 실패 경험자
- 흡연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 흡연 지속자

□ 날 짜

2020년 5월 20일~24일, 6월 10일~14일, 7월 1일~5일, 7월 22일~26일, 8월 19일~23일

*상기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시모집합니다.

□ 캠프특전

- 흡연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폐CT 포함)
- 금연약물요법(니코틴패치, 껌, 경구용 약물 등) 제공
- 생활안복,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제공
- 전문적 금연치료와 유지를 위한 집중심리상담 제공
- 금연 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주시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5층 제주금연지원센터
- 전 화: 064-758-9030/ 010-3068-9030

*회기당 선착순 10명 제한합니다.

*접수 시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캠프 수료 후 전액 반환됩니다.

일 정 표 (예)							
요일/시간	1일차(수)	2일차(목)	3일차(금)	4일차(토)	5일차(일)		
08:00~08:30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조식/ 바이탈 체크/	조식/ 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 바이탈 체크		
08:30~09:30		전문의 상담 및 약 처방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IV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IV	사후 관리 안내 및 개별 맞춤 예약 상담, 보조제 처방		
09:30~10:00		담배가 주는 많은 것들			전문의상담 (검진결과상담)		
10:00~10:30							
10:30~11:00							
11:00~11:30		금연에도 약이 있나요?			나의 몸을 건강하게		
11:30~12:00							
12:00~14:00		중식 및 휴식	요가명상/ 세로토닌 워킹/ 윌링테라피	중식 및 휴식	제주금연 지원센터		
14:00~14:30		건강검진 & 심리평가					
14:30~15:00		나의 체력 알아보기					
15:00~15:30	일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15:30~16:00	매CT촬영 (한국병원)						
16:00~16:30							
16:30~17:30	금연을 한다는 것	휴식	스트레스관리				
17:30~18:30	석식 및 휴식	석식 및 휴식	석식 및 휴식	석식 및 휴식			
18:30~20:00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I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II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III	나의 새로운 삶 유연하기			
20:00~	개인 휴식 및 취침						

* 프로그램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연카드 무료신청
QR코드

담배 끊는 확실한 방법



보건복지부 ·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제주금연지원센터

☎ 758-9030